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651.1385
거제 055.682.4950
경주 054.772.8141
고양 031.919.4040
광명 02.895.1966
광양 061.762.0012
광주 062.524.3511
군산 063.462.4491
김해 055.332.6000

나
남양주 031.577.7762
남원 063.632.7002
논산 041.736.7393

다
대구 053.652.0070
대전 042.254.3035
동해 033.531.3007
마
마산 055.246.8746
목포 061.242.1611
바
부산 051.441.2221
부천 032.668.9700

사
사천 055.833.2344
서귀포 064.762.1400
서울 02.3705.6000

서천 041.951.6400
성남 031.708.2503
속초 033.635.3523
수원 031.252.5111
순천 061.744.7990
아
안동 054.854.5482
안산 031.483.6536
안양 031.455.2700
양산 055.367.1144
여수 061.654.2161
울산 052.247.3520
원주 033.742.6090
의정부 031.853.6332

인
인천 032.424.0524
자
전주 063.224.5501
제주 064.711.8322
제천 043.646.6009
조치원 041.865.0872
진주 055.755.3463
진해 055.542.0020
차
창원 055.283.9488
천안 041.575.0961
청주 043.265.3700
춘천 033.254.4878
충주 043.848.3240

타
통영 055.646.2547
파
파주 031.945.5998
평택 031.651.7701
포항 054.274.4444
하
하남 031.793.7771

충
충주 043.848.3240

한국 2012 Vol. 487 1+2
YWCA



북한 다섯 곳에 YWCA가 재건되는 꿈을 꾸며

글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Cover Story 해맞이 축제

한국YWCA 창립9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역사와 민족과 여성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과 함께 90주년 해맞이를 하였다.

Contents

2012 Vol.487 1 + 2

- 03 90주년 특별기고 ● 북한 다섯 곳에 YWCA가 재건되는 꿈을 꾸며 | 차경애
- 04 YWCA 역사읽기 ● 한국YWCA 90년, 우리 모두가 역사이고 주인입니다 | 편집실
- 06 한국YWCA 90주년 지금 이 순간 ● “열정 공유하기” 2012 YWCA 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축제 | 편집실
- 08 Y-정책 | Y돌봄 연구소 ● 돌봄 노동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산 | 은수미
| Y돌봄 현장의 소리 ● 한국YWCA 돌봄운동 위한 사업유형검토 간담회 | 김혜경
- 13 YWCA와 사회 ● 청소년 폭력 | 양선희
- 15 성명서 ●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YWCA의 입장
- 16 체현, Y현장 ● 청주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현주
- 18 조영 : Y가 만난 Y사람들 ● 광주Y 조규혜 선생을 만나다 | 편집실
- 20 북한을 만나다 ● 2012년 북한동향 | 백영옥
- 22 평화시선 ● 음악, 그림, 글 그리고 평화 | 김소영
- 23 월레아침기도회 ● 여자 여럿이 함께 섬기더라!(누가 8:1-3) | 장빈
- 24 연합회소식
- 25 회원YWCA 신입회장 소개
- 27 회원YWCA 소식
- 35 신간소개 ● 평화학자와 함께 읽는 지도 밖 이야기 외 | 편집실

YWCA 창립90주년!

내 생애에 이런 뜻 깊은 날이 있을까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YWCA 창립9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YWCA가 있기까지 Y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한국YWCA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세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의 결실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일깨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 여성들이 바르게 설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기에 YWCA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설자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YWCA운동은 지금까지도 Y의 기본정신으로 이어져오고, 그 믿음은 YWCA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YWCA는 여성을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이 사회에 여성지도력을 키워내고 여성들의 모아진 힘으로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불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YWCA 창립9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맞을 YWCA 100주년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시대정신을 잃지 않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왔던 Y의 90년이 100주년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몸살이 커져서 사회를 지금보다 더 크게 병들게 하기 전에 예방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과 가진 자와 없는 자·동서지역 간·세대 간·남녀 간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서 평화를 이루는 일, 그리고 바른 가정 생활이 이루어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일 등,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Y회원들은 물론, Y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여성지도력을 키워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YWCA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머지않아 이 땅이 평화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비전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YWCA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6·25 전 북한에 있던 선천, 안주, 평양, 원산, 함흥 다섯 곳의 YWCA가 재건되는 꿈을 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우리의 자매, 북한의 여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새 세상을 이루어가는 역군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YWCA 역사읽기』를 시작하며 한국YWCA 90년, 우리 모두가 역사이고 주인입니다

글 | 편집실

90th ANNIVERSARY

2012년은 한국YWCA가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의 한국YWCA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인 동시에 앞으로도 수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운동체이다.

따라서 연합회를 비롯한 우리 9만 회원들이 YWCA의 90주년이 100주년이 되기를 바라고, 이후로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예수님이 당신을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신 것처럼 회원들 또한 90년의 YWCA 역사를 기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YWCA 역사를 기념하는 일환으로 『YWCA 역사읽기』를 시작한다. YWCA 역사와 함께 했던 선배들을 모신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여성시민단체가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어가야 할 YWCA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다.

한국YWCA 90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YWCA는 왜 1922년도에 설립되었을까?” YWCA를 설립한 세 분의 선각자 가운데 한 분인 김필례가 세계YWCA 본부에 보낸 메시지 <The Story of YWCA Beginnings>에 의하면 당시 사회가 YWCA를 필요로 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한 한국여성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조직과 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이들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 일치를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YWCA야말로 우리 요구에 맞는 최선의 기관이라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그리스도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요. 둘째, 세계적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 것도 이일을 막을 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YWCA는 명실공히 최고(最古), 최대(最大), 전국 규모의 기독교여성단체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YWCA 9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문득, “우리는 과연 한국YWCA의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더욱이 전국 50여개 회원YWCA와 9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회원들이 현재 YWCA의 역사를 만드는 주역들이나, YWCA 산 증인인 역사가들이 역사의 뒷안길로 스러지고, 기억도 희미해져간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E.H.CARR(1892~1982)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항상 다시 쓰여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YWCA도 몇 권에 이르는 역사서를 출간했다. 2006년에 발간된 『한국YWCA 80년사』는 YWCA 80년 역사를 총망라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크게 8장으로 이루어져 1장은 창립배경, 2장은 시대별 운동사, 3장은 주제별 운동사, 4장은 행정·조직의 변화, 5장은 시설·기반의 확장, 6장은 세계 속의 한국YWCA, 7장은 새 문화를 열어나온 YWCA, 8장은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NGO로서의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일제 시대 이후 혹독한 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6·25, 4·19와 5·16, 5·18과 민주화에 이르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자리해온 YWCA의 이야기가 객관적 기술을 통해 기록돼있다.

그런데 80년사 편찬이후 90주년을 맞고 보니, Y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진다.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한 시대의 정신적 윤곽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역사를 만든 주역들의 시대정신은 사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노력에서 더 잘 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서만큼이나 역사가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한국YWCA 90년, 우리 모두가 역사이고 주인

『YWCA 역사읽기』는 연합회를 비롯한 회원Y의 원로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회원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 옛날 YWCA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시대를 이어온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의 YWCA를 진단하고, 100년을 향한 비전의 초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총 9회에 걸쳐 게재될 좌담회는 1920년대부터 시대별, 주제별 주요사건과 행사 등을 통해 Y가 당시의 사회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Y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원지도자로서 혹은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과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주요 담론으로 한다.

역사가들은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다. YWCA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100주년을 향한 YWCA의 운동방향과 비전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열정 공유하기” 2012 YWCA 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축제

글 | 편집실

2012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한국YWCA 90주년의 해도 막이 올랐다.

YWCA 9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첫 순간을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맞이하였다.

2012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동진에서 2012 YWCA 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축제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52개 회원YWCA 회장단과 연합회 회장단 및 실무자 총 139명이 참가하였다. 90주년 해맞이 축제와 함께 YWCA 90주년은 이미 시작되었다.

2월 9일, 해맞이 전야에 회원YWCA대표들과 함께 YWCA의 꿈과 열정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과 해맞이 전야 축제를 열었다. 고상준 90주년기획코디네이터가 “워크숍 : YWCA 100주년을 향한 90주년의 의미”를 진행하였다.

YWCA 9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9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일 것이다. 90주년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축하’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와 궤를 같이 해온 YWCA의 역할과 정신을 되새기며 이것을 기반으로 시대를 앞서 보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90주년의 의미는 “90주년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90주년은 단순한 기념과 대회로 끝이 아니라 100주년을 준비하는 시작을 의미한다. 90주년에는 10년 뒤에 다가올 100주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꿈꾸며 10년 동안 꿈을 잉태하는 그 시작이다.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젊음의 상징이다. 단순히 신체적 젊음의 의미를 넘어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YWCA 90주년은 100주년을 바라보며 향후 10년을 향한 총체적인 비전과 기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YWCA운동가인 우리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며 꿈꾸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며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고민 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이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세상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의 가치가 구현될 것인가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青春 女讚




90주년의 컨셉은 ‘청춘여찬(青春女讚)’이다. 한국YWCA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 살림의 실천을 추구한다. 녹색의 평화로운 섬김과 나눔이라는 뜻에서 청(靑), 여성성에 기반을 둔 섬세한 섬김과 살림이라는 뜻의 여(女),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며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가진 살림과 나눔이라는 뜻의 찬(讚),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포괄하며, 새로운(young) 것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의 춘(春), 바로 이 ‘청춘여찬(青春女讚)’이 90주년 우리들의 컨셉이다. 따라서 ‘청춘여찬’은 90주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활동들의 시금석이 된다.

워크숍에서는 ‘청춘여찬’에 맞게 기획된 2012년 90주년 주요사업계획을 회원YWCA 회장단과 나누며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100주년까지 10년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제안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숲SUP(Self Upgrade Project자기계발프로젝트)프로젝트, 100주년 기념 연극팀, 100주년 기념 등반팀, 나무학교 프로젝트,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100주년 준비 기금 모금이 연합회 90주년기획팀에서 제안한 내용이었다. 올해 이루어지는 90주년 주요사업과 앞으로 10년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회원Y 회장단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활동들이 ‘행사들’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일치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워크숍에 이어 저녁에는 해맞이 전야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YWCA 100주년에 이루어질 모습들을 글로, 몸으로, 뉴스로 만들어보았다. 10년 후인 YWCA 100주년에는 북한

YWCA가 세워지고, 새터민들이 Y활동가가 되며, 다문화여성들과 청소년들이 Y훈련을 통하여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며 표현하였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애쓰며 구체적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YWCA 100주년에는 분명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0일 오전 7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해맞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쪽에서 자그마하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의 마음도 붉게, 뜨겁게 물들였다.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자리에 YWCA 90년의 역사를 이어갈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 새로운 시작점에서 YWCA 90주년의 해가 밝았다. 

YWCA연합회는 90주년을 일회적으로 기념하기보다는, 올 한해 YWCA의 역사와 정신, 사회 속에서의 의미와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며 의미를 다지기 위하여 거의 매 달 90주년을 기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2월 | YWCA 정기총회 및 90주년 해맞이 예배
- 3월 | 준비기획단 발족 및 구조화
- 4월 | 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 5월 | YWCA 평화순례
- 8월 | 전국회원대회/청소년전국대회(통일리더십 캠프)
- 10월 | ITI(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 12월 | 성탄예배

돌봄 노동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산

글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류가 생겨난 이래 생계유지를 위한 육체노동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으며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보편적인 행위이자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축이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따르면 노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브와 아담이 저지른 죄의 대가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17).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자유로운 시민의 최소한의 조건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성경과 조금 달라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필연성에 매달려 노동을 하는 인간은 동물과 같으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폴리스에서는 육체노동을 노예와 여성에게 맡겼고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만이 시민이자 폴리스의 구성원이다. 노동이 시민권을 얻은 것은 자본주의 이후의 일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동이 부의 원천이라 하며

당시 경제학자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소위 노동가치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한국의 헌법 32조 1항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때의 노동은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이윤을 가져다주는 생산적 노동이다. 가사나 간병, 육아 등의 돌봄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나 노동력 재생산 활동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돌봄 행위 없이 인류가 존속할 방법은 없지만 생계유지 및 집단 유지 활동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활동 혹은 인간성을 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이다. 때문에 돌봄의 가치나 돌봄 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가정 내 여성의 사사로운 일인 돌봄이 사회에서의 공적 활동으로 바뀌면서부터이다. 즉 돌봄이 일종의

산업이자 생산적 노동의 영역에 진입하면서부터 생겨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돌보미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이다. 201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ILO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 노동을 근로의 권리이자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권을 부여받는 노동으로 규정한 가사노동협약(189호 협약)을 채택하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다.

더군다나 돌봄 노동은 넘어야 할 세 가지 산이 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의 산이다.

현재의 노동은 과거의 노동과 다르다. 1인 8시간 풀타임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노동 이외에 정규직이 아닌 노동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허덕이며 시민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에서 가사 노동이 공적인 노동의 성격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것이 정규직 노동과 같은 권리를 갖느냐 아니면 비정규 노동처럼 무권리의 늪에 빠지느냐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적인 행위라는 산이다.

돌봄 노동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에서 돌봄 활동을 하는 여성의 사사로운 행위와 항상 비견된다. 그래서 돌봄 노동의 가치나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노동의 잣대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사적 활동을 잣대로 들이댄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여성 활동은 여성이면 누구나 별 다른 교육이나 지식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사회적 돌봄 노동 역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으로 치부된다. 환자 간병이나 산모 돌보미, 아이 돌보미가 어디 그저 익혀지는 일인가. 어머니, 할머니, 그 이전 세대의 유산이 현대의 여성에게로 이어져 오면서 생긴 지혜와 숙련의 결과가 아니던가. 그래도 그 가치를 요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어머니, 할머니, 그 이전 세대가 어느 때는 노예이거나 재산으로 간주되면서 사적으로 했던 활동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2009년 필자는 90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하루 활동을 모두 적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 8세에서 13세 학생이 대부분인 지역 아동센터 교사 노동의 80%는 돌봄이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먹이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어지러운 아동센터를 하루 서너번 이상 닦고 쓸어야 한다. 식탁 예절에서부터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인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적 예의를 가르치고 간혹 아이들 머리감기 기에 손발톱 다듬기도 한다. 싸우는 아이를 말리고 후사가 고가 나거나 아픈 아이가 생기면 병원까지 업고 댕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기도 일상의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도 돌봄은 쏙 빼놓고 산수 교육을 한다든가 영어 교육을 시킨 것만 자신의 노동이라고 적은 교사가 30%

였다. 심지어 조사를 함께 했던 여성 조사원들조차 답변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 자신이 그것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사회적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여성이 하는 것도 사회적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하거나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인간이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필연성의 산이다.


모든 생산적 노동은 나와 내 가족의 생계유지에 기반한다. 그것이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여전히 생계유지 활동이다.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그와 같은 노동이 노예 노동으로 간주된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노동에 매달리면 자유, 정의, 평등, 존중, 연대 등의 가치를 듣거나 말하고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사의 부당 명령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후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거나 그것이 내 직무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나치전범 재판 법정에서도 이처럼 답한다. 유대인이자 독일의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 중의 하나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잡혀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현장에 미국의 잡지 뉴위커의特派원 자격으로 참

관한다. 그리고 1963년 뉴위커에 그 내용을 기사로 게재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재판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명령받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가 명령받은 일이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일”이다.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2010년 한 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애국자이고 다시 그런 상황이 닥쳐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거나 고문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한 것 역시 비슷하다. 국가나 사회 혹은 기업이 부여한 직무를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즉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필연성에 따라 노동을 수행할 경우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행위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돌봄 노동은 그 자체가 생명유지와 생계유지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런 돌봄 노동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 노동이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이거나 공적인 노동이거나 필연성을 넘어서는 노동이어야 한다.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데 세 가지나 눈앞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지 않은가. 노동 처럼 돌봄도 인류의 탄생과 함께 한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며 당사자인 여성의 운명이다.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 밖에 답이 없다. 그 여성 속에 한국YWCA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한국YWCA 돌봄운동 위한 사업유형검토 간담회

글 | 김혜경(부산YWCA 사무총장)

지난 2월 2일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YWCA 돌봄사업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Y돌봄사업 목적의 재정립과 사업유형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Y는 1984년 4월 연합회 후원회가 무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하여 각종 무료직업소개 및 민간부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종은 가사, 산모, 보육, 간병, 출장요리 영역이며 2011년 12월 현재 52개 회원Y 74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돌보미 회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한다. 본 사업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회원 간의 편리성 도모와 상호협력을 전제로 회원제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한국Y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취업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한국Y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돌봄 서비스 유형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공공과 민간에 혼재된 서비스 전달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정책 변화와 영리업체 참여 증가로 시장경쟁에 따른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ILO협약과 사회적 변화로 개별적 돌봄보다는 사회적 돌봄으로 이해되어 사회적 노동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복지담론의 확산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원Y의 돌봄사업에 대한 인식은 일자리 창출과 수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안정법상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위법상황에 직면

하거나 위법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Y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본 사업 목적의 재정립과 사업유형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직업훈련 담당실무자 워크숍, 사무총장 확대운영위원회에 이어 회원Y 돌봄사업 유형검토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관점이 정리되고 다양한 사업 유형이 제시되었다. 먼저 회원Y 돌봄사업 운영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 첫째, 운영이익을 발생시킬 것인가
- 둘째, 돌보미를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 알선관계만 유지할 것인가
- 셋째, 복지담론 확산에 힘입어 돌봄사업을 제도권 보호와 제도개선운동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와 함께 기독성을 가진 돌봄노동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감하였다. 다음은 사업 유형으로, 기존 후원회 명의로 설치된 무료직업소개소는 적법하게 그대로 운영하고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회원Y에 대해서는 무료직업소개소 인가를 반납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Y에 맞는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알선을 기본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파견업, 사회적기업·생활협동조합이 제시되었다. 이는 후원회 차원의 일괄된 하나의 유형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회원Y의 밀착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 동감하였다.

이와 함께 Y회원 모두와 공유해야 할 과제들이 남겨졌다.

- 첫째, Y회원정책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돌보미 회원을 어떤 주체로 볼 것인가
- 둘째, 아직 비공식적 상태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어떻게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대안을 찾아내어 정책으로 입안할 것인가
- 셋째, 사회적 저평가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답을 찾아낼 수는 없겠으나 돌봄정의를 중점정책으로 다루는 한국YWCA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원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따돌림, 방관, 일진, 자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주 듣고 만나는 낱말들이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다고 부르짖고 있고,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예방과 근절 대책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세미나나 포럼을 열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래, 바로 이거다” 싶은 대책은 없다. 그저 지금이 위기라는 의식만 팽배하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때 우리는, 청소년 기관이라고 자부하는 YWCA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청소년 폭력은 사회문제의 집합체

청소년 폭력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발달과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더 악화된 생태계 파괴와 생명 경시 풍조, 공동체의 해체,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개발과 경쟁 중심 논리들이 엉키고 뭉쳐 더 이상은 풀수 없는 실타래가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청소년을 공부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입시 교육에만 치중했

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복 속에, 학생이라는 이름 안에, 경쟁과 차별 틈에,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서, 몸과 마음을 움츠린 청소년들은 어른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인터넷·휴대전화 같은 IT 문화에 중독되고 있으며, 자신의 부대낌과 억압과 갈등을 또래에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질풍노도처럼 쏟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을 키우는 것

영국의 아핑검 고등학교는 평범한 영국 시민 키우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시골 학교다. 이 학교의 교훈은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 약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 즉 평범하고 예의바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이 된 사람도 없고 백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도 없는 이 학교 졸업생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평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90년 전 선배들이 YWCA를 세울 때 세상과 사람을 향해 품은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이를 정성으로 돌봄으로 하늘의 정의를 펼치고, 그들과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나눔으로 평화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사람 청소년을 큰 사람으로 영접하는 마음, 그들의 지와 덕과 체가 고루 조화롭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 Y 정신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남보다 나은 사람,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을 키우는데 치중했다. 일류 대학에 들어가고 이름난 직업을 가지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지배하는 동안, 함께 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은 조용히 사라졌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 내 삶을 꿈꾸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밥 짓기 정도는 할 줄 알고,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의 마음을 헤아려 나눌 줄 아는 평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소년 폭력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작은 이를 영접하는 Y 정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누가복음 9:48)

90년 전 선배들이 YWCA를 세울 때 세상과 사람을 향해 품은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이를 정성으로 돌봄으로 하늘의 정의를 펼치고, 그들과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나눔으로 평화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사람 청소년을 큰 사람으로 영접하는 마음, 그들의 지와 덕과 체가 고

루 조화롭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 Y 정신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폭력을 바라보는 Y의 시선과 행함은 세상의 것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세상이 청소년 폭력을 줄이고 막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한다면, Y는 작은 청소년을 어떻게 큰 사람으로 영접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작은 청소년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치유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평범하고 예의바르게, 배려와 공동체의 가치를 간직하고 성찰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구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인성교육, 인권평화감수성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제 막 첫 삼을 뜬 키다리 학교를 정성들여 지은 다음, 문을 활짝 열어 작은 청소년들을 초대하고, Y다운 리더로 키워야 하겠다.

청소년에게 평화로운 숨을

얼마 전 EBS에서 방영한 학교 특집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학교가 숨을 쉽니다’ 이다. 청소년이 숨을 쉬어야 사회도 숨을 쉰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쭉쭉’ 고른 소리를 내는 청소년! 그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숨 내쉬며 환하게 웃는 세상! 그 꿈같은 모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다.

90년 전 우리 사회에 작은 촛불로 태어난 YWCA의 빛이 이 땅의 작고 약한 청소년들을 영접하는 환한 불꽃으로 피어나,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숨 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YWCA의 입장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최근 학교 폭력으로 심한 괴로움을 겪고 그로 인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는 세계에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성을 띠고 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입시와 성적위주의 폐쇄적인 교육 정책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물질과 성과 위주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고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집중이수제 등은 오히려 체육 시간의 축소를 낳아 청소년들을 더욱더 교실 안에 갇히게 하고 있다.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사라짐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우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는 실종되었다.

오늘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청소년단체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한국YWCA는 가슴 깊은 안타까움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한국YWCA는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로서 그동안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한국YWCA는 전국 52개 회원YWCA와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조화롭게 자신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한국YWCA는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협력 하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다. 내 자녀의 성적과 성취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과 프로그램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3 한국YWCA는 전국의 Y-틴 청소년 회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4 한국YWCA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재능 학교 설립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5 한국YWCA는 전국의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한 국정활동과 각 부처별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전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촉구한다.

1 학부모들은 내 자녀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키우는 아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생명존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바른 학부모 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폭력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해서는 안된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과 대처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유관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정책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주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글 | 신현주(청주YWCA아이쿱생활 사무국장)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YWCA도 제38회 전국대회에서 돌봄정의 정책을 채택하고, 돌봄회원의 공동체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합운영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YWCA는 현재 어떤 영역에서 회원들의 조합운동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봄으로써 회원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2월 8일 개점한 아이쿱자연드림 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점을 찾아가보았다.



청주YWCA는 1995년부터 생협운동을 시작하여 2012년 지금까지 16년 동안 쉬지 않고 전개해왔다. 청주YWCA는 1995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30주년을 기점으로, 청주YWCA가 그동안 가꾸어 온 모든 사업과 조직을 묶어 역사의 전환점이 될 새로운 운동정책을 내놓았다. 그때 '생활협동운동'을 결의하고 특별사업으로 채택하여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청주YWCA가 지향한 생활협동운동은 먹거리 나눔을 매개로 하되, 생활재 공급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를 조직하고 생협운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청주YWCA 생협운동을 통하여 이 운동에 참여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생태적 사고를 갖게 되었고 삶의 방식을 보다 친환경적이며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연대를 이루는 성과를 크게 나타내었다.



청주YWCA가 생협운동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실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었다. 생협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YWCA프로그램과의 조정과 결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었고, 사업부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의 내용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도력양성위원회에서는 일본 생협현장 방문을 추진했으며 회원위원회 아나바다운동은 생협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해갔다.

그런데 1995년 생협의 핵심운동인 소공동체 등대모임(마을모임)이 20개나 만들어질 만큼 급성장하였으나 1997년에는 10개, 1999년에 5개 정도로 크게 축소되면서 공동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울러 YWCA와 연계되는 조직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2000년, 생협운동의 침체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보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아이쿱생활사업연합회로부터 물류통합을 제안받았다. 생활재 공급은 한국생협연대가 담당하고 청주YWCA는 회원교육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회원들은 주문하는 생활재의 양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현재의 조합비)를 내고 산지가격 그대로 생활재를 공급받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물품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며, 주문공급 대금 회수까지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지역 생협의 실무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청주YWCA생협은 6개월가량 공급방식의 전환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생활재 공급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 때문에 한국생협연대와 물류협약을 맺으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청주YWCA는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생협위원회를 통하여 쉬지 않고 실천해 왔다. 2010년 9월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300여명 조합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법인설립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장연수, 프로그램협의회 등에서 생협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역사회에 건강한 먹거리운동을 실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단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11년 4월 9일 YWCA생협조합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쿱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설립총회를 하게 되었다.

청주YWCA생협은 법인설립총회에서 아이쿱자연드림 신설매장 사업을 선언하고 채택하면서, 공적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내고 폭넓은 생협운동을 펼칠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집중되어있는 아파트와 YWCA생협조합원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 자연드림 매장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그 노력 끝에 2월 8일 아이쿱자연드림 청주YWCA생협 강서점을 개점하게 되었다.

자연드림 청주YWCA생협 강서점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정육, 우리밀 빵, 피자, 생활용품까지 생활 곳곳에 필요한 물품을 조합원들이 직접 심의·평가하고 산지점검을 통하여 관리한 물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소비할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다. 매장 설립비용 5억5천만 원은 조합원의 차입과 출자로 자발적인 경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본금을 마련하였으며 협동조합 정신을 잘 살려내고자 하였다. 생협의 활동가들이 직접 매장 운영을 고민하고 홍보하고 모임을 만들고 학습하는 현장으로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개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생협 활동가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매장에 나와 동네 조합원을 만나고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설명하고 매장 운영을 도우면서 협동조합 정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청주YWCA가 16년 이상 생협운동을 해오다보니 어느새 식탁도, 생각도, 삶의 방식이 달라져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게 된다. 생협운동은 당장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탁월한 지도자 한 두 명이 이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문이 잘 나가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물줄기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생협을 하고자 하는 이유 아니겠는가. 

청주YWCA 생협의 목적

1. 생활공동체를 통하여 사라져가는 이웃을 만들고,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를 고민, 해결하는데 힘쓴다.
2.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몰락을 방지하고, 우리 땅을 살리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건강한 먹거리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3.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광주Y 조규혜 선생을 만나다

정리 | 편집실

연합회 김기동 실행위원은 지난 2월 2일, 90주년을 맞이한 광주YWCA와 역사를 함께 해온 조규혜 선생을 만나고 왔다. 광주YWCA의 대모 조아라 선생의 조카이기도 한 조규혜 선생은 1952년에 광주YWCA 간사로 시작하여 자원지도자를 거쳐, 1985년 부회장, 1986년부터 1988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 후로 지금까지 광주YWCA 명예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다. 이날 인터뷰는 조규혜 선생 덕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Y인으로서의 선생의 삶과 광주YWCA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김기동 선생님께서 Y와 인연을 맺고 활동하신지 60년이 되셨습니다. 결혼생활에서 60년이면 회혼인데, 현재도 명예이사를 하시면서 Y에 푹 빠져계십니다. 광주Y는 1922년에 설립되었는데 선생님께서 195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으니, 광주Y는 이미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많은 활동을 해서 그 당시 광주에서 Y의 이미지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규혜 그렇지. 광주Y는 처음에 야학과 교회여성운동대회를 했었어. 1950년대에도 각 교회가 Y로 와서 여신도 운동대회를 열곤 했었지. 사람들 사이에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Y는 사회문제의식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사회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김기동 고모님이신 조아라 선생님이 Y간사를 권유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선생님은 Y를 어떤 뜻으로 알고 계셨나요?

조규혜 수피야어고 다니면서 이곳이 기독교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또 나는 김필레, 조아라 선생 모두를 존경했는데, 그분들 모두 Y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Y에 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Y에 온 것이 일평생 감사목이야. 내가 Y에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도 보고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이룰 수 있었어. Y활동을 한 것과

안한 것으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지.

김기동 선생님의 삶이 Y의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Y는 Y목적문을 가지고 활동하고 운동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Y활동을 이 목적문에 비춰볼 때 아쉬운 점, 혹은 보람은 무엇입니까?

조규혜 그건 수도 없이 많지. 아쉬운 점에 대해 한 가지만 꼽아 본다면 우리Y가 기독교정신에 기반 하여 그 정신대로 운동하면 좋겠어. 정부나 기관과 함께 하는 위탁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Y가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해. 일본Y친구들 얘기로, 일본Y는 기독교기반에 둔다는 목적을 위한 간사를 따로 둔다는 거야. 기독교기반에 둔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지도력을 양성하는 일이야. 그러한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진짜로 YWCA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김기동 그렇다면 Y목적문의 내용이 선생님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조규혜 Y목적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운동하고 고민하다보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어령씨 말대로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영혼의 샘물이 흐르고 있

어. 이 영혼의 샘물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가슴, 영혼의 샘물을 팔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영혼의 샘이 흐르면 장벽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너와 나 사이에도 영혼의 샘이 흐르는 공부를 해야 돼. 올해 나의 화두는 소통이야. 정의평화생명은 기본이고, 이것을 토대로 너와 내가 영혼의 샘물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소외된 자하고 통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통하려면 예수하고 먼저 통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

김기동 선생님의 60년의 Y활동은 선생님 가슴 속의 영혼의 샘물을 샘솟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Y에서 지금 가장 약화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규혜 그렇지. 그런데 진보교회도 사회정의에 치중하다보면 메마르고 은혜를 느끼기 어렵게 해. 사회정의실현도 중요하나 그것은 신앙적인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샘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샘물을 파야 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느끼며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

김기동 위에서 선생님도 정의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정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조규혜 정의는 자기만 옳다고 부르짖어서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됨으로 남을 죄인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야.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고 남을 의인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해. 나는 한 때 '경건한 인간이 되자' 는 목표를 세웠어. 그런데 경건한 인간이 되려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성벽으로 싸야 되더라고. 나중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용서받는 죄인이 되자' 는 목표로 바뀌어. 그랬더니 나를 성벽으로 쌓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 정의만 생각하면 남을 죽여야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정의에는 항상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지. 그 양면을 알아야 해. 정의를 찾으려면 서로 간에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해.

김기동 정의의 다른 말은 배려와 이웃되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합회는 '평화의 해' 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미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분유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Y안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규혜 지금 원자력의 문제가 심각해.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Y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원자력은 Y목적인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에도 위배되는 거야.

김기동 올해 한국YWCA는 90주년을 맞이하였고 10년 후면 100년이 됩니다. Y에 대해 거는 기대와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조규혜 진짜 Y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강이 흐르는 Y가 되기를 바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Y가 이 민족사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고 공헌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해야겠지.


김기동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Y다음이란 무엇입니까?

조규혜 Y다음이란, 물론 사회정의도 말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Y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소통하는 것이겠지. 남과 함께 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말이야.

김기동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면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조규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개인자신부터, 부단히 깨어서 벽을 허물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거야. 적어도 Y인이라면 Y가 목표하는 인간상, 지도력 이러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겠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야 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Y를 기뻐하라, Y를 중요시하라!" Y는 최고의 인생 교육기관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새롭게 되고 변화돼. 운우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섬기고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지.

김기동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규혜 내 삶이 Y의 삶이고 지금도 나에게서 Y를 떼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Y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해. Y를 통해 개인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사회와 Y를 변화시키는 유기적 관계가 앞으로 이어지면 좋겠어. 

2012년 북한 동향

글 | 백영옥(연합회 평화나눔팀위원,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에 북한지역의 항구들이 하얗게 얼어붙어 적막감이 흐르는 가운데 2012년이 시작되었다.



2012년은 북한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축제의 해이다.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이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로 선포하고 수년간 대대적인 준비를 해왔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1998년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발전목표로 제시된 것이다. 사상의 강국과 군사의 강국에 이어, 경제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2012년 드디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선포하는 해인 것이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은 식량난 해결, 전력문제 해결, 주택난 해소를 약속한 북한 당국의 가시적인 성과가 2012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2012년을 기다려 왔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2월 16일 김정일의 70회 생일,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4월 25일 군창건 80돌 등 다양한 경축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4월까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15일에 맞추어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완수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평양소재 대학들은 휴교조치 되고 건설현장에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행사들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2012년 북한의 핵심과제는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당, 군, 보위부 등 핵심기관들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최고위층의 기득권유지 욕구 등을 이용해 체제수호에 전력한 결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2월 16일 김정일 생일 70회 기념행사와 김정일 상과 훈장 제정,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 제막식,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과거 김일성 이상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논리를 편 것처럼 김정일 이상화를 통해 김정일=김정은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국정경험이 일천하고, 후계 수업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북한 내부에 현 기득권세력을 대체할만한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강력한 정치사회적 통제로 당분간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행사준비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석탄 등 자원이 과잉수출 되고, 생산투자의 어려움으로 생필품 품귀현상이 심화되며, 주민들의 상납급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부진 속의 엄청난 행사성 자금조달은 어려운 북한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89년 '세계 청년학생 평화축전' 을 무리하게 준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또한 북한 경제문제의 핵심인 식량문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건과 확장이 필요하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부친의 상중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등 각종 개방관련 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금 확보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던 중동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예멘 등 적지 않은 독재국가들이 재스민혁명으로 전복됨으로써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앞으로 달러나 유로화 같은 경화의 유입경로가 상당부분 막혀버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개혁보다는 기존의 외화벌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 노동력 수출, 자원수출, 폐쇄형 특구추진, 관광, 항구임대 등의 외화벌이 사업으로 정권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외화벌이 사업은 국내 제조업과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경제개혁의 지체만을 가져올 수 있다. 비록 중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중국의 지원은 현금이나 실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저렴한 고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남한의 기업이나 교류에 의한 것이나 중동지역의 무기판매를 통한 현금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북한주민의 삶이 그들의 기대치처럼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이미 주택건설 및 발전소 건설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과 배려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통제와 장악 정책을 세우고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새 세대들이 과연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 내부에서 기득권 핵심요인들 사이 어떠한 갈등요소가 자라나고 있는지, 또 이들은 과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올해 북한은 소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은 한국, 러시아, 미국 등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중국은 지도층이 교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내부 안정화를 위한 시기로 활용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리더십의 교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추이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올해 북한의 신년사설을 분석해 보면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대남수위를 강약으로 조절하면서, 군사적 시위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 북한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어 ”

음악, 그림, 그리고 평화




글 | 김소영(연합회 평화나눔팀위원, 문화방송 차장)

아기 예수가 외양간에서 태어났을 때 근처 양치기 목자들은 하늘의 천사가 전해주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일 영광스런 순간에 천사가 인간에게 골라준 단어는 평화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듯 인간이 참된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산 시대는 거의 없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의 내면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인 이상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평화는, 어쩌면 잠깐은 맛볼 수 있어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이상향은 아닐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비발디의 유명한 모테트 <세상엔 참 평화 없으랴>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평화를 주소서>를 눈감고 듣고 있노라면 잠시 현재의 시름을 잊고 천상의 평화로 마음이 직행하는 듯한느낌에 빠지곤 한다. 예민한 촉수를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에 평화를 녹이고 갈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들의 작품은 고발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 고야가 반도전쟁 당시 프랑스 군대의 만행을 보고 그렸다는 <1808년 5월 3일>⁰¹나, 역시 프랑스 제국주의를 염두에 두고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⁰²,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⁰³와 <한국에서의 학살>⁰⁴이 그렇다. 작품에 나타난 강렬한 이미지는 폭력으로 짓밟힌 평화를 역설하고 있다. 국내에선 강요배 화백의 <제주도 4.3사건 연작>⁰⁵이 비슷하다.

내 마음을 움직였던 작가는 독일 미술가 케테 콜비츠였다. 죽은 아들 품에 얼굴을 묻은 어머니, 영양실조로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자 두 눈을 가리고 절규하는 어머니, 밥을 달라며 사발을 내미는 아이의 필사적인 눈동자... 크지도 않은 판화에 단순하고 투박하고 거칠게 형상화시킨 인간 생존의 고통은, 반전과 평화를 호소하는 어떤 구호보다 심연에 강한 울림을 준다. 실제로 콜비츠는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이기도 했다.

최근 막 내린 뮤지컬 <넥스트투노멀>은 어린 아들이 죽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상실의 충격을 나름대로 이겨낸 남편은 자신과 달리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이해하고 끝까지 끌어안는다.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딸은 어머니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한다. 주인공 여자는 결말에 이르러 폐허가 된 자신의 영혼을 인정하고 자아와 대면하러 여행을 떠난다. 아픈 사람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배려로 유지되고 있는 가족의 평화는 그래서 절망적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수많은 예술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다루고 있다. 노래를 들으며 그림을 보며 글을 읽으며 우리는 잠시 감정이입의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돌아온 제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다. 반복되는 일상이 평탄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고단한 삶은 더 큰 인생의 비극에 비하면 차라리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남의 평화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에서 나의 부, 나의 건강, 나만의 명예에 인생을 거는 부질없는 질주에 대해 과감하게 “그만!” 하고 외치는 내면의 브레이크가 생겨나게 된다. 

여자 여럿이 함께 섬기더라! (누가 8:1-3)

글 | 장빈(동광교회 목사)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된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나갔던 정신이 되돌아와 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 일이 너무 고마워 그들은 자기 소유를 바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 소유를 바쳐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섬겼다고 한다. 그만큼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들이었다는 반증이다. 정신의 문제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그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늘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누가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중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맨 앞에 소개한다. 마리아의 인생은 그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그분 만나기 전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그녀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병을 고쳐 주시던 이야기보다 고침 받은 후 그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 정신이 돌아오자, 마리아의 눈에 일곱 귀신 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여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저들의 정신과 시선이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 마음도, 뜻도, 목숨도 하나. 저들은 여럿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토를 달거나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고, 일곱 귀신을 몰아낸 여인들,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놀라운 일은, 주님을 만나 거듭난 여자 여럿이 함께 섬기기 시작한 후,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였고,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장의 딸과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여인들 여럿이 함께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YWCA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여럿이 함께 모여, 그분과 제자들을 섬기며 많은 기적을 이루어낸 공동체이다. YWCA의 지난 90년, 마리아 같은 여인들 여럿이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룩한 기적의 나날들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여럿이 함께 모여있기에 나눔으로 평화를 꽃피우는 기적들이 계속될 것이다. YWCA가 있어 동시대를 사는 이 땅의 동포들이 하늘로서 임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특별히 현대판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이 땅의 자녀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YWCA가 있어 우리 모두 계속 행복할 것이다. 아멘. 

연합회 소식

연합회 신년예배 ● 1월 2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2년을 여는 연합회 신년예배를 드렸다. YWCA 90주년을 시작하는 새해에 드리는 예배로 방지방목사가 '주 안에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2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 연합회는 2월 1일 오전 9시에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여자 여럿이 섬겼더라'는 제목으로 장반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정의 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및 해맞이 축제 ●



연합회는 2월9일부터 10일까지 정동진 썬크루즈리조트에서 2012년 정기총회 및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였다. 회원YWCA회장 43명과 사무총장 50명, 연합회 실행위원과 명예연합위원 등 총 139명이 참석하였으며, 90주년 워크숍과 해맞이 전야축제, 해맞이 예배 및 정기총회를 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지역위원회 주력운동 보고를 했으며, 2012년 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2012년 연합회 사업 목표는 90주년 기념 및 100주년 비전 제시, 핵심사업 집중 시행-돌봄정의 평화나눔의 현장 운동 지원, 회원Y운영기반 및 책무성 강화 지원이다.

신임회장연수 ●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정동진 썬크루즈리조트에서 신임회장 연수가 있었다. 회원YWCA 신임회장 15명, 증경회장 2명, 연합회 회장단, 실행위원 및 실무자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차경애 연합회회장의 주제 강의,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의 워크숍, 정영애 증경회장과 김형남 전주Y증경회장의 사례 나눔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Y회장으로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정기총회 ● 2012년 연합회후원회 정기총회가 1월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장을 포함한 회원 19명, 감사 1명, 실무자 7명이 참석하였으며, 2011년 감사보고, 수지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재산현황 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있었다.

Y-틴 전국협의회 ●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있었다. 'Y-틴, 날개를 펼쳐라!' 라는 주제로 전국Y-틴 회원대표 12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에 대한 집단토론을 통해 YWCA청소년 회원의 다짐과 요구를 종합한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2012년 Y-틴 전국중점운동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평화Y파이 Zone'을 전국중점주제로 결정하고, 걷기운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설명회 ● 1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가 모였고, 전년도 및 2012 3차년도 사업소개가 있었다.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들에게 심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3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서울과 경기권을 대상으로 한 공모기간은 2월 29일까지다.

돌봄사업유형 검토 간담회 ● 2월 2일 대전 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돌봄사업유형 검토 간담회가 있었다. 26개 회원사무총장 및 돌봄사업 담당 실무자, 돌봄과살림팀위원 총 57명이 모였다. 한국YWCA 돌봄사업의 현황 공유 사업유형별(유료직업소개사업, 파견업,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사업) 검토사례 발제와 논의를 했다.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 3기 시작 ● 한국YWCA인터넷방송국(www.afreeca.com/ywca1)이 1월 25일부터 3기 방송을 시작했다. 3기 방송은 "나눔으로 평화" 주제로 진행되며, 평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된다. PD를 선발하여 방송의 정체성과 통일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총 5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아나운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한다.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은 2011년 2월 11일 개국하였으며, 현재 15만여 명의 누적 청취자가 다녀갔다.

국가기록원 연계 역사자료 DB화 ● 국가기록원 지원으로 YWCA 1922년 초기부터 1980년 대까지의 사진 2만장 분량을 디지털화하였다. 추후 1950년대 이후 월간YWCA 자료를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동정

- 백미순(국제팀위원) 성폭력상담소장 취임
- 김낙주 하남YWCA 사무총장 취임
- 박문경 광명YWCA 사무총장 취임
- 고은희 연합회 청년리더스팀 신규채용
- 손은하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신규채용

회원YWCA 신임회장 소개

1. 생년월일
2. Y시작연도
3. 이사경력
4. 부회장역임여부
5. 회장으로의 포부, 다짐



● 광명 은현순

1. 1955. 9. 10
2. Y시작연도 : 1987년
3. 이사경력 : 17년
4. 부회장역임
5. 광명Y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회원들이 연합하여 정의, 창조, 평화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양 강점례

1. 1950. 8. 20
2. Y시작연도 : 1996년
3. 이사경력 : 12년
4. 회장역임(2002-2005)
5. 이사님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Y100년을 향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증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광주 최양님

1. 1947. 1. 8
2. Y시작연도 : 1987년
3. 이사경력 : 24년
4. 부회장역임
5. 광주Y 창립90주년! 100년을 향해 공감하며 소통하는 Y,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Y, 언제나 찾고 싶고 오고 싶은 Y로 가겠습니다.



● 김해 류혜경

1. 1960. 3. 13
2. Y시작연도 : 2003년
3. 이사경력 : 9년
4. 부회장역임
5.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기회이니 기도하면서 Y회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남원 이채욱

1. 1957. 11. 3
2. Y시작연도 : 1998년
3. 이사경력 : 14년
4. 부회장역임
5. 한국Y가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남원Y도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대구 최정숙

1. 1959. 3. 9
2. Y시작연도 : 1987년
3. 이사경력 : 18년
4. 부회장역임
5. 주님께서 부르시고 Y회장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사님들과 직원들, 모든 회원들을 섬김으로 Y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서귀포 전희순

1. 1957. 10. 4
2. Y시작연도 : 1993년
3. 이사경력 : 8년
4. 부회장역임
5. 서귀포Y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서귀포Y를 이끌어 온 회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한층 성숙돼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천 김영옥

1. 1964. 11. 18
2. Y시작연도 : 1994년
3. 이사경력 : 8년
4. 부회장역임
5. 지역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키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목표로 청소년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1. 생년월일
2. Y시작연도
3. 이사경력
4. 부회장역임여부
5. 회장으로서의 포부, 다짐



● 순천 김사옥

1. 1953. 10. 10
2. Y시작연도 : 1986년
3. 이사경력 : 16년
4. 부회장역임
5. 선배들의 신앙과 열정을 이어받아 겸손과 섬김으로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며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여수 함옥인

1. 1960. 4. 8
2. Y시작연도 : 2001년
3. 이사경력 : 10년
4. 부회장역임
5. 30주년을 맞이한 여수Y가 빛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주신 바통을 잘 이어받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Y 동역자들과 여수Y를 세워가겠습니다.



● 원주 최영희

1. 1945. 9. 10
2. Y시작연도 : 1993년
3. 이사경력 : 19년
4. 부회장역임하지 않음
5. 크고 화려한 사업 보다는 YWCA의 근본이념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주 이영희

1. 1960. 12. 28
2. Y시작연도 : 1979년
3. 이사경력 : 13년
4. 부회장역임
5.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Y활동을 펼쳐나겠습니다.



● 조치원 김창옥

1. 1963. 4. 4
2. Y시작연도 : 1992년
3. 이사경력 : 11년
4. 부회장역임
5. 조치원Y 모든 회원들과 소통하며 포용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속에서 조치원Y가 맡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해 지은경

1. 1962. 11. 15
2. Y시작연도 : 1997년
3. 이사경력 : 11년
4. 부회장역임
5. 겸손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 청주 이강순

1. 1941. 10. 20
2. Y시작연도 : 1970년
3. 이사경력 : 43년
4. 부회장역임
5. 부족한 제가 40여년 동안 Y 안에서 배우고 익힌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순례의 길을 걸겠습니다.



● 통영 최명자

1. 1951. 2. 12
2. Y시작연도 : 1990년
3. 이사경력 : 18년
4. 부회장역임
5.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즐거운 분위기 창출 및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남 이영주

1. 1958. 2. 24
2. Y시작연도 : 1991년
3. 이사경력 : 19년
4. 부회장역임
5. 이사를 충원하고 이사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YWCA 소식

YWCA News

● 북부

강릉 YWCA 진용재 간사

● 산모돌보미 보수교육

강릉Y는 1월31일 산모돌보미 보수교육을 하였다. 돌봄운동을 펼치는 강릉Y가 산모돌보미 교육을 실시하여 돌보미에게는 Y정신에 입각한 생명사랑 돌보미로 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수교육은 돌보미의 '업무역량 강화' 및 '행복한 돌보미 만들기'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자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인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탄자니아 IT교육 봉사활동



서울Y는 19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원과 단장, 실무자 총 22명이 1월 5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에서 IT교육 봉사활동이 있었다. 서울Y와 탄자니아Y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서울YWCA 제90회 정기총회

서울Y는 1월 26일 제9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157억을 통과시키고 이사 8명을 선출했다.

원주 YWCA 김혜선 간사

● 원주Y 나눔 실천 - 바자회 기금 성애원 전달



원주Y는 1월 19일 설을 맞아 보육시설 성애원을 방문하여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 물품은 원주Y와 E마트가 함께한 사랑나눔바자회를 통한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Y의 나눔 정신을 실현하는 마당이 되었다.

인천 YWCA 김주희 간사

● 인천YWCA 제42회 정기총회

인천Y는 1월 31일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 결산 및 2012년 사업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윤신자 이사의 은퇴예배 및 명예이사 추대식도 가졌다.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춘천Y 회원무료특강

춘천Y는 1월 9일 회원무료특강-수수부꾸미와 감자샐러드 만들기를 하였다. 춘천Y는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Y정신과 활동을 알릴 수 있는 통로로 회원무료특강을 열고 있다. 유용한 실생활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춘천YWCA 제47회 정기총회

춘천Y는 1월 17일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 보고 및 2012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팀장

정의로 만드는 평화교육



고양Y는 1월 16일 평화중점운동교육의 일환으로 '정의로 만드는 평화: 그리스도인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강의를 있었다. 통일을 위하여 사회 내부적으로 정의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나누었다. 정의의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초록으로 그리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안산Y에서는 환경동아리 참살이와 함께하는 '초록으로 그리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 안전한 먹을거리교육, 친환경 요리 만들기, 대안생리대 실습, 재활용 DIY 교육 등 환경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녹색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안양 YWCA 이한나 팀장

꿈이있는 집 이전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안양Y는 2월28일 꿈이있는집 이전기금마련을 위하여 음악과 함께 하는 후원의 밤 및 만찬을 진행하였다. 꿈이있는 집은 1998년 '여성자활의집'으로 시작하여 재개소한지 7년이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를 보호하고 심리, 의료,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돕고 있다. 상반기 중 쉼터 이전을 앞두고 좀 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정부 YWCA 김은영 간사

안양YWCA 제26회 정기총회

안양Y는 1월 17일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을 하였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학교



의정부Y는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지역 중, 고등학생 대상 동계 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청소년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었다. Y청소년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건강한 인식을 키워가기 위해 의정부Y는 힘을 쓸 것이다.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파주Y 돌봄민들레 모임

파주Y는 1월 5일 돌봄민들레 모임이 있었다. 월회 산모돌봄민들레와 가사돌봄민들레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돌봄민들레는 도우미를 YWCA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가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돌봄민들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삶을 나누는 민들레의식과 여러 가지 교육이 행해지는 한편, 자치적인 운영으로 홀씨들 간의 친교,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교환, 기타 업무도 처리한다.

중부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청소년 환경캠프

논산Y는 청소년 환경가들과 전북자연환경연수원으로 환경캠프를 다녀왔다. 한편 논산Y는 2011년 청소년40명과 함께 환경&에너지교육, 먹을거리 교육, EM교육 및 제품 만들기 등을 진행하여 환경되살림운동을 실천하였고 청소년 환경을 배출하였다.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대전Y는 2월 7일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전Y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수립의 일환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전Y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의견을 공유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주부교육 - 무료 장 담그기 시연

천안Y는 2월 22일 무료 장 담그기 시연회를 열었다. 안정희 부회장이 전통 장 담그기를 강연한다. 전통을 전수하는 동시에 주부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천안YWCA 제22회 정기총회

천안Y는 1월 31일 제2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감사·사업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보고를 하였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청주Y 이사·위원연구모임

청주Y는 2월 16일 70명이 참석한 이사·위원연구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YWCA중점운동과 2012년 청주Y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모임으로 Y정신을 2012년도 청주Y운동에 녹여내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이동돌봄-맞벌이가정 자녀 위한 즐거운 방학교실



충주Y는 돌봄의 대상을 아동들에게도 확장하여 돌운동을 실천한다. 방학동안 부모들의 부재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방학교실을 열었다. 학습지도, 동화구연, 인형극, 경제금융교육, 썰매체험등의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였다. 방학교실이 돌봄운동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부

광양 YWCA 정정숙 간사

광양YWCA 제21회 정기총회

광양Y는 1월 31일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광주 YWCA 서정현 부장

광주YWCA 제83회 정기총회

광주Y는 1월26일 제83회 정기총회 열고 2011년 사업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보고를 하였다. 또한 이사 (10명) 및 공천위원(5명)을 선출하고 2012년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남원YWCA 제20회 정기총회

남원Y는 1월 27일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하고 회장이 취임식을 하였다.

목포 YWCA 정현정 부장

다문화 한글배움터



목포Y는 신안군 섬 지역을 찾아가는 다문화 한글배움터를 운영한다.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 한글수업이 어려운 신안군의 섬지역을 주 2회 찾아가서 한글,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요교실, 종이접기, 부모교육가족나들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 YWCA 김아라 간사

순천YWCA 제 62회 정기총회

순천Y 1월 30일 제 6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였다. 또한 김사옥 이사가 제 2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여수YWCA 사회적기업 민들레마을



여수Y 사회적기업 민들레마을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민들레 마을은 사업초기 돌봄서비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음식사업부를 시작으로 의류사업부·제과제빵부·카페부를 개설하여, 취업취약계층과 다문화여성근로자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며, 창출된 수익금은 방학 중 급식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시락제공 및 결식아동 무료급식과 여성·청소년 쉼터에 반찬과 간식 지원 등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왔다. 노동부 지원이 종료되는 2012년에도 민들레마을(주)은 여성들의 계속 고용을 통한 재정자립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매출 신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할 것이다. 현재 이웃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커가는 민들레마을은 국내산재료와 천연조미료로 정직하게 만든 건강한 도시락과 나눔 카페&베이커리의 커피, 우리밀 빵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제30회 여수YWCA 정기총회

여수Y는 2월 1일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각부 결산 및 사업보고,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공천위원 인준, 이사·공천위원 선서가 있었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 결의



전주Y는 1월 13일 청소년부 학교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유해환경 감시순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도자 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만들었다. 또한 놀토 프로그램

확대와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제주YWCA 제45차 정기총회

제주Y는 1월 27일 제45차 제주YWCA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 및 결산 보고, 2012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였다.

● 동부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2011년 녹색생활실천 유공자 시상 국무총리 유공 표창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1 여성 녹색생활 실천 유공자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부터 6년간 자연과 환경 분야에 꾸준히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자연체험학습장 자연과사람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자연생태아동지도사 분야 여성 자리창출에 기여하였고 2012년에는 화포천 생태체험관 개관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 분야에 전문 강사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에게 알맞은 전문 직종을 개발하고 국제 각층에서 여성 인재를 채용하도록 안내하고 협력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Y는 2월 7일 10여개 단체와 함께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민행동은 3월 11일 후쿠시마 1주기를 기점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기금 마련 의류바자



부산Y는 2월 6일 '나눔으로 평화' 운동 일환으로 의류바자를 열었다. 이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 기금과 새터민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부산YWCA 제67회 정기총회

부산Y는 1월 26일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심의를 하였다. 또한 이사 11명(35세 미만 이사 1명 포함)과 공천위원 5명을 선출했다.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사천YWCA 제24회 정기총회

사천Y는 2월 7일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 및 감사보고,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양산Y는 2월1일부터 취약계층 여성의 무료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질병, 장애로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파견하여 신체수발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무료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구인, 구직 관계를 형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어린이 겨울방학 직업체험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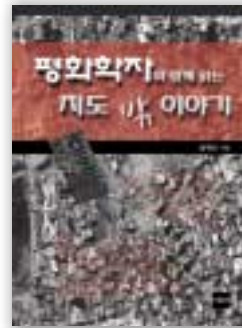


진주Y는 1월 10일부터 11일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키자니아를 다녀왔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90여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꿈을 키울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을 통해 가상의 돈인 '키조'를 벌고 유용하게 쓰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포항YWCA 제32회 정기총회

포항Y는 2월 1일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사업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보고, 감사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평화학자와 함께 읽는 지도 밖 이야기

글 정주진 | 도서출판 아르케 펴냄

타자에 관심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 책은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지구촌의 폭력 여덟 가지 이야기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폭력을 민감하게 느끼고 이해해야 비로소 평화를 추구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식량위기, 아동노동 문제, 공정무역, 공정여행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제뉴스에서조차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생소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를 통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알려주고, 왜 평화연구자, 그리고 평화학이 폭력을 자세히 다루는지, 여덟 개 이야기를 왜 폭력 이야기라고 하는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우리 밖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해외봉사활동이 유행이 된 지금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하다.



정치의 몰락

글 박성민 | 강양구 인터뷰 | 민음사 펴냄

20~30대가 다시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권림해 온 보수 우위 시대는 왜 막을 내리게 되었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분노' 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여전히 이념 전쟁에 머무르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무책임한 정치에 20대에서 40대까지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낳은 안철수 현상은 과연 안철수 '시대'로 이어질까?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2012년이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모색해본다. 국내 최고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양념 사용법

글 아오키 아츠코 | 옮김 구현숙 | 이아소 펴냄

이 책은 73가지 양념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방법을 소개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강, 마늘, 참기를 같은 양념도 어떤 음식에 넣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으로 양념을 살짝 가미해줌으로써 요리의 맛이 확 달라지는 마법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어보기 바란다.



진짜 거짓말

글 임지형 | 박영란 그림 | 창개구리 펴냄

『진짜 거짓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단편 동화집이다. 외모 지상주의, 부의 불평등, 다문화, 지나친 교육열, 가정 폭력 등으로 힘없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친구의 고민 역시 눈여겨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고통들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비슷한 처지에 있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열어 줄 것이다. 각 편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독자의 가슴 속에 잔잔한 여운이 흐를 것이다.